

민주, 정동영·한광옥을 어찌할꼬

전주 재보선 공천 놓고 고민 또 고민 둘다 공천엔 ‘호남당 이미지’ 악영향 승부처 부평을 박희태 대항마 ‘빈곤’

민주당 지도부가 4·29 재보선 공천 작업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텃밭인 전주의 2개 선거구의 경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공천 여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략지역으로 분류된 인천 부평을의 경우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 어떤 카드를 쓸지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애초 11일 공심위 구성을 끝마칠 계획이었으나 외부위원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13일께 구성될 전망이다. 공심위는 일단 재보선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중순께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이달말 후보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영-한광옥 출마 논란=정 전 장관은 10일부터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전주 덕진 출마 여부에 대한 막판 장고에 들어갔다. 또 한 전 대표는 전주 완산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 전주에 누구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것. 정 전 장관이 전주에 출마할 경우 당의 호남 이미지를 강화해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체류 중인 정 전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한국시간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 측근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출마 쪽에 무게를 실어 당 지도부를 긴장하게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과거 나라중급 관련 비리 전력이 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더욱이 정 전 장관이 공천을 받을 경우 갑대중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한 전 대표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당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민주당 정세현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남북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운영관 서울대 교수, 한 방송계 인사를 영두에 두기도 했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는 한나라당 박 대표의 출마 여부. 박 대표가 예비후보 중에 공천하고 다른 곳은 갑대중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한 전 대표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부평을 공천 고심=민주당 입장에서 인천 부평을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다. 이 지역에서만 이기면 '4·29 재보선 승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는 한나라당 박 대표의 출마 여부. 박 대표가 예비후보 중에 공천하고 다른 곳은 갑대중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지낸 한 전 대표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물론, 부평의 경우 대우자동차 공장

이 있는 지역으로 최근 경제위기로 야당에 유리하게 민심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상황이지만 마땅한 거물급 인사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현재 당 주변에선 정 전 장관의 투입설을 비롯해 외부 인사로는 박호근 전 인천대 총장, 최유규 전 의원을 비롯해 제물포출신의 대기업 사장, 방송계 인사 등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종특별자치시 만들겠다”

민주-자유선진당 충청 민심 구애 경쟁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를 고리로 충청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두 당 지도부는 11일 각각 충남·북을 방문, 4월 국회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일관 시(市)가 아닌 특별자치시로 규정할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지역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4월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내용과 취지를 훼손하거나 악화·변형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고 집요하게 진행중”이라며 “세종시를 법제화하는 것은 이 정권이 포기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되살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원내 대표와 충청권 의원 등이 참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추진위’를 당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권선택 원내대표, 박상돈 사무총장 등도 이날 오전 충남 연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시간설청과 세종시 건설현장에 방문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각종 법안과 대책에 대해 속도전을 펴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법안과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지연전을 펼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3월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하고 4월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투쟁 수위를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특강을 통해 “현 정권 내에 감소국 연방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하려면 2012년까지는 마쳐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법률 개정을 비롯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날 강연 내용이 세종시와는 상관없었지만 충북에서 경연을 함으로써 충남을 방문한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정개특위장 김충조 의원 내정



민주당 김충조(비례대표·사진)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장은 민주당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풍부한 국회 경험과 경륜이 있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맡는 데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강철 사전 영장 청구 대검총수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1일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수석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조직특보를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정무특보를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금을 관리했던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 받고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으며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문특위 비주류 쿠데타 성공(?)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갑부 싸움’을 벌이다 특위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내부에 휩싸였던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가 오는 17일 임시회를 앞두고 점차 정비돼 가고 있다.

문화수도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6명을, 의장이 1명을 추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각 상임위에서는 내부적으로 위원 선임을 마친 상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정남·김선문 의원을 추천했고 교육사회위원회는 김후진·김월출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양혜령·전우근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추천 1명이 남았지만 사실상 새 위원 구성을 끝마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 안팎에서는 차기 위원장으로 동구가 지역구인 양혜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위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는데 비주류인 양 의원이 최소 4표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수도 특위는 지난달 12일 활동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손재홍 위원장 등 특위 위원 7명 전원이 일괄 사퇴, 한달동안 표류해 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웅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참가국 확대 등 성공 개회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을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기룡)은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과 중앙당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남 동부권 거주 학부모들은 지역 내 우수인재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특성화 대학인 순천대 광양캠퍼스가 조속히 설립돼 자녀의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원들과 순천·광양·여수 등 동부권 지역민들은 광양캠퍼스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광양캠퍼스 설립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대는 오는 2010년 3월 광양시 중앙동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임차해 120명 정원으로 광양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나 순천시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섬진강 살리기’ 건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협의회는 11일 여수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섬진강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운영위원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5대 강 정비사업은 내수 경기를 북돋우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5대 강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에 대한 비전을 제시

‘장애인지원 조례’ 토론

○...광주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인 신수정 의원은 12일 각하동 북구장애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신 의원의 주재 발제에 이어 할렐루야인공동체 고오주 목사, 김공룡 광주장애인선수위원장 등이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전익정 및 경철행정학과 특채/남·여순경공채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1년과정	순경공채	특채
• 2개월 원생 3회 반복 학습	• 2개월 원생 6회 반복 학습	• 남·1차: 966명 2차: 214명	• 전의경 특채 240명
• 영어기반이 된 수강생 한화	• 영어기반이 인턴 수강생 한화	• 여·1차: 40명 2차: 47명	•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 수강료 교재 25% D/C	•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 101단·1차: 120명 2차: 120명	• 경찰 특공대 특채 38명

※ 종합 1개월: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13만원 · 단과: 9만원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자격증 취득

1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2 모집인원: 각반 50명 선착순

3 강의요일 및 시간

4 교육기간: 2009년 3월 9일 ~ 6월 28일

5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달에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6 원서교부및등록기간

7 등록방법(수강료:150,000원)

8 수료 후 특전: 수료증수여(총장명인), 스피치지도사 자격증수여, 각종선거연설편 파견, 각 기업

9 후원회: 한 상택 - 한국유년연설인중영회 회장 - 제 17대 대통령선거 유세위원장 - 한국 정치 연수원 교수 - 대통령실 전국유년연설대회 대외본부장 - 각종 스피치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장 -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후보 연설회 및 연설문 작성(30년) - 사단법인 한국유년연설협회 광주본부 회장

※저서: 말하기 교본, 스피치 용법 연설 리더십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합격을 앞서는 시간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습니다.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9 적중문제풀이 4주 완성

9급 지방직 (시험5월23일)

3월16일(주)야간반(현재예약수중)

소방직 - 사상최다모집예정

www.mdgosl.co.kr 222-4560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입·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대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직통: (062)227-9600 FAX: (062)227-9500

마사지 광주지점 시간제 경마직 채용

● 근무일: 금요일 1일 하루 근무

● 급 여: 2개월 수습기간 이후 52,000원(식대, 교통비 포함)

● 복 지: 경조사비 지급, 1년 2회 상품권 지급

● 채용대상: 남성 00명, 여성 00명

● 근무시간: 오전 10:00~오후 6:30

※ 이력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남성접수시: rsweon@yahoo.co.kr

▶ 여성접수시: lbs1713@hanmail.net